신분 속여 배 타고 갈아입을 옷도 챙겼다

제주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범행 계획한 정황 속속
경찰, 피의자 3명 구속… 살인·살인 교사 혐의 적용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피의자 3명이 21일 구속되며 수사가 탄력을 받은 가운데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50대 A 씨와 A 씨의 부인인 40대 B 씨에 대해 살인 혐의, 50대 C 씨에 대해서는 살인 교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살인 혐의로 제주로 압송된 50대 A 씨가 범행 전 갈아입을 옷과 신발 등을 준비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택시를 바꿔 타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지나 달아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16일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D 씨의 자택으로 몰래 들어갈 당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종이가방을 들고 있던 장면이 주변 CCTV에 찍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가방 안에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챙겨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빠져나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인근 하천에 버리고 택시를 타고 용담해안도로로 이동해 준비한 옷과 신발로 갈아입었다.

이후 A 씨는 다시 택시를 타고 동문시장으로 이동해 복잡한 시장 안을 배회하다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아내 B 씨의 차량을 타고 제주항으로 이동, 전남 완도행 배에 차량을 싣고 제주도를 빠져나갔다. 택시 요금은 모두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들 부부는 범행 전날인 지난 15일 여수에서 배를 타고 제주로 들어왔으며 경찰 조사 결과 여객선 예매에 제3자의 신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B 씨가 사전에 살인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살인 공모 혐의를 적용했다.

C 씨는 A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 씨가 피해자인 D 씨와 아는 사이로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음에 주목하고 C 씨가 고향 지인인 A 씨에게 D 씨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대가가 오간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 씨와 A 씨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 씨가 범행 후 C 씨와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영기자

A공연장이 관람석 하부를 무단 증축해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써온 시설물. 제주시 제공

빛도 안 들던 이주노동자 숙소
공연 관람석 하부에 '무단 증축'

제주시, 불법 시설 적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제주시모 공연장이 빛이 들지 않는 관람석 하부를 무단 증축해 이주 노동자 숙소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제주시 구좌읍 A공연장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사용승인을 받은 A공연장은 그동안 건물 내부에 있는 관람석 하부 공간을 이주 노동자 숙소 혹은 창고, 사무실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

또 A 공연장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공간에도 임시 대기실용 컨테이너와 비가림 시설 등 연면적 총 1089㎡를 무단 증축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A공연장을 상대로 시정명령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11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숙소로 쓰인 관람석 하부 공간은 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곳이었다"며 "건축법 위반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나오미)센터 등은 지난 10일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공연장의 실태를 폭로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A공연장에서 일했던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노동자인 크라소브 파블로(Krasov Pavlo)씨가 참석해 공연장 측이 산업재해 은폐하고 노동안전보건법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는 그는 A공연장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고 반인권적인 숙소를 운영해왔다고도 했으며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나오미센터는 제주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었다. 이상민기자

"동부처리장 일부 무허가 제주도 불법경위 밝혀라"
월정리비대위, 기자회견

제주시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시설 중 일부 시설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주장했다.

월정리비대위는 21일 동부하수처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8년과 2014년에 준공된 동부하수처리장 내 반응조와 분배조 시설이 건축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제주자치도는 불법시설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비대위측은 이어 "건축행정시스템 새움터에 등록된 동부하수처리장의 시설현황을 볼 때 4개만 등록돼 있고 반응조를 포함한 기존 7개 시설의 건축면적은 27766㎡로 이번에 증설면적인 2804.46㎡보다 작게 나온다"면서 "이는 서류상에 없는 무허가 시설이 있기 때문이며 제주도는 무허가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제주도는 불법공사를 즉각 멈추고 월정리민과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영석기자

겨울비 내리는 교정 겨울비가 내린 21일 제주대학교 교정에서 학생들이 우산을 쓰고 등교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비자 만료에도 불법 취업
외국인 선원 2명 등 적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체류 자격 만료 상태로 불법 취업한 무자격 외국인 선원 2명과 이들을 고용한 선주를 적발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귀포해경 506함은 지난 20일 오후 6시 9분쯤 태흥리포구 남쪽 약 6.8㎞ 해상에서 4.99t급 어선 A호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 불법 취업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선원 B 씨와 C 씨 총 2명과 이들을 고용한 선주 겸 선장 60대 D 씨를 단속했다.

해경은 선원 B 씨와 C 씨가 취업비자(E-10)를 소지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해 불법 취업 혐의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또 선주 D 씨에 대해서는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혐의가 적용돼 자세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불법조업 中 어선 3척 나포

제주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쌍타망 어선이 제주해상에서 나포됐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은 지난 19일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00㎞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3척을 불법 조업 혐의 등으로 나포했다. 조사 결과 2척은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고 1척은 승무원명부를 미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혐의가 확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15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과정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